

한입에 먹는 미니과일, 상품화 가속

도쿄지사

자르지 않고 통째로 간편하게

- 과일을 간편하게 섭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늘어나면서 미니과일이 일본 소비자들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다. 미니과일은 기존의 과일보다 사이즈가 작고, 한입에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핵가족과 독신세대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.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여 산지에서도 미니과일 품종을 적극 개발하고 생산을 확대하여 새로운 니즈에 대응하고 있다.

미니무화과로 판로 확대중인 오사카

- 일본 내 무화과 생산량이 전국 3위에 달하는 오사카는 미니무화과 산지화에 앞장서고 있다. 미니무화과의 무게는 개당 20~40g 정도이며, 크기는 오사카 주력품종인 '마스이도핀'의 1/3 정도이다. 또한, 껍질째 먹을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하여 '보석 휘코'라는 브랜드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.

(좌)미니무화과 '네구로네'
(우)일반무화과 '마스이도핀'

출처 : 일본농업신문(日本農業新聞)(2018. 3.28)



- 오사카후(大阪府)에서는 약 41ha의 무화과가 생산되고 있으며, 이는 전국 생산량의 10%정도에 해당된다. 이 지방에서 재배되는 미니무화과 품종은 '이스키아블랙'과 '네구로네'가 중심을 이룬다. 오사카후 과수진흥회는 미니무화과를 지역 특산물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생산확대를 추진하고 있다. 본격적인 유통은 2~3년 후로 전망된다.
- 이에 앞서 오사카후는 2017년산 미니무화과 세트(2팩, 6개)를 1,000엔에 시험판매 했었는데, 총 24세트가 매진되는 호조를 거뒀으며, 향후 소비시장에서의 약진을 전망하고 있다. 오사카후는 미니무화과를 통째로 감싼 '무화과 찹쌀모찌'를 오과자 제조업체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등 시장확대를 위한 마케팅을 다각적으로 펼쳐가고 있다.

한입 사이즈 과실시장의 뉴페이스로 떠오른 키위, 사과, 감

- 카가와현에서는 지자체와 카가와대학이 육성한 한입 크기의 키위인 '사누키키위'의 생산이 확산되고 있다. 평균 40g 정도의 작은 사이즈로 한입젤리처럼 쉽게 먹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. 평균당도가 높고 키위 특유의 까칠한 느낌을 없애 식감을 높였으며, 2016년도 기준 재배면적 7.5ha로 소비시장 확대에 대비 중이다.
- 나가노현 역시 한입에 통째로 먹을 수 있는 미니사과를 내놓았다. 일반 사과의 절반정도 크기인 150~200g의 '시나노피콜로'와 '시나노푸치'를 주력 제품으로 키워가고 있다.
- 기후현과 나가타현 등에서 생산되는 감 '베이비시몬'도 지름 3cm에 20~30g의 아기자기한 사이즈로 껍질째 먹을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. 2017년부터 슈퍼마켓에 입점·유통되고 있으며 출하량이 점차 확대되며 미니과실시장에 신흥강자로 이름을 더하고 있다.



(좌)일반키위
(우)미니키위 '사누키'

출처 : 일본농업신문(日本農業新聞)
(2018. 3.28)



미니사과

출처 : www.rakuten.co.jp



미니감 '베이비시몬'

출처 : 베이비퍼시몬 페이스북

다양한 미니사이즈 과일, 채소 품종개발에도 박차를

- 1인 가구와 핵가족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만큼 간소하고 사용이 편한 상품에 대한 일본 소비자의 니즈가 늘고 있다. 한입사이즈 과일은 이런 추이에 맞는 간편함으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있다.
- 이는 가공식품 전반에 불고 있는 소포장·소형화바람이 과일·채소 등의 신선식품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.
- 사회구조와 가구형태의 변화가 소비시장의 변화까지 주도한다는 점은 이견이 없는 사실이다. 1인가구와 핵가족중심의 소비시장을 선점하는 다양한 상품개발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.

출처 : 일본농업신문「ミニ果実“歓迎”単身世帯スイーツに“最適”「切らずに」「丸かじり」(2018.03.28.)
<https://item.rakuten.co.jp/monocco/nyb7157c015>
<https://www.facebook.com/ベビーパーシモン-240985599383029>